#### 다산포럼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오대산의 중대사자암(中臺獅子庵) 부근에서 만난 다람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적멸보궁을 향 해 걷는 돌계단에서 다람쥐들은 길을 인도하는지, 놀 아 달라 하는지 혹은 자기네에게 볼일 없냐는 식으로 계속 알짱거린다. 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찾아 보니 등산객들이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곤 했기 때문이 었다. 사람을 보면 자신들에게 먹이를 줄 것이라 기대 해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계에서는 두려움의 본능이 생 존과 안전을 보장해 준다. 하지만 동물들도 인간이 자 신을 해치지 않고 자신들의 생존에 위험이 아니라는 것 을 알면,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야생동물 먹이 주기가 야생의 생존 방식 자체를 망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에 동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대산 사자암에서 적멸보궁에 이르는 길을 오르는 이들은 아마 상당수가 불자이거나 혹은 최소한 부처님의 땅과 같은 성지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일 것

# 오대산에서 만난 작은 평화

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모두 이곳에서는 살생을 하 면 안 된다는 착한 마음을 지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 신들을 괴롭히거나 해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을 다람쥐들이 사람들 앞에서 한참 까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람쥐-사람-부처 간의 어떤 믿음의 관계가 만들 어졌고 그것이 튼튼히 이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적멸보궁에 이르러 가쁜 숨을 고르며, 적멸보궁의 의미를 헤아리고 있었다. 깨달음의 최고 경지가 적멸 (寂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궁금해하 고 있던 찰나. "보살님 떡 좀 드세요. 그리고 하산하실 때 울력 보시하고 공양도 하고 가세요"라고 산중의 아 주머니들이 말을 거셨다. 적멸보궁에 바쳐진 공양미들 을 300m 떨어진 중대사자암으로 옮겨 달라는 부탁이 었다. 다람쥐들이 나를 믿어 주듯이, 산중의 보살님들 도 처음 보는 나를 믿어 주셨다. 내가 그 쌀을 사자암으 로 운반할 것이라 어찌 믿는지, 혹시라도 내가 그 쌀주 머니를 들고 집에 가 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 왜 이 산 중의 다람쥐나 보살님들은 나를, 아니 사람을 믿어 주 는 것일까?

산중에서 쌀을 운반하는 데 인부를 사서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번거롭 고 불확실한 방식으로 쌀을 운반할까? 그리고 왜 사람 들은 보살님의 요청에 흔쾌히 응할까? 울력 보시에 참 가하는 순간, 등산이라는 행위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 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수행이자 산중 살림살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확장된다. 기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공동 체의 살림살이는 상품-화폐 관계로 이루어진 세월보다 신뢰와 호혜 및 도덕경제에 기반한 세월이 훨씬 길다.

문득 오대산의 다람쥐와 울력 보시는 평화의 기초를 보여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공 포에서 해방될 경우, 인간도 동물도 생명체로서 번영 된 삶을 살고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생명에 대해 (불확실하고 번거롭지만) 신 뢰를 갖고 공통의 가치 및 세계와 살림살이를 가꾸고 또한 타자에게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할 때 평화는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오대산에서 생명체 간의 신뢰, 공존, 평화 는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월정사에서 상원사에 이르 는 8km 길은 비포장 도로이다. 포장을 하려는 당국의 시도를 산사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월정사 초입의 전나무길 도로도 포장을 걷어 내고 흙길을 조성했다. 도로를 포장하면 무릇 생명체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 이라고 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전쟁 때 상원사를 불태 워 소개(疏開)하려던 국군의 시도에 '나를 사찰과 함 께 태우라'며 목숨을 걸고 항거하신 한암 스님의 일화 도 있다. 생명체와 그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건 불교 공동체의 결기, 품격, 가치가 변화하는 현대 세계와 만나고 있기 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른 여름휴가에, 푸르른 오대 산의 평화를 잠시 접하고 왔다.

####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탁자 위에 꽃이 피었다. 꽃을 보는 아침은 눈부터 맑 아진다. 누군가 마음을 이렇게 빛깔로 보냈구나. 노랗 게 빨갛게 꽃으로 보낸 그도 꽃임이 분명하다.

사랑의 보답이 사랑으로 왔다. 고맙다고 꽃을 보냈 으니 꽃에서 그의 향기가 난다. 아니 그에게서 꽃향기 가 왔다.

꽃을 바라본다. 낮게 키 맞춤을 한다. 순금 같은 추억 이 노랗게, 불타는 열정이 빨갛게 피어 있다. 가지는 그 의 손가락 같고, 이파리들은 그의 입이 되어 흔들릴 때 마다 나불나불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 같다. 꽃은 그렇 게 몸을 흔들어 그의 색을 피운다.

꽃을 보니 그가 보인다. 난 지금껏 저 꽃처럼 어떤 색 으로나마 타오른 때가 있고, 진한 향기인 적이 있던가. 아니 그처럼 누군가에게 진하거나 뜨거운 순간이 있었 던가. 꽃을 보며 꽃 속의 그를 바라본다.

꽃을 조심조심 만진다. 그와 순하게 눈 맞춤을 한다. 꽃이 웃는다. 그가 살포시 웃는다. 우는 꽃을 본 적이

# 꽃 품앗이

없다. 제일 어려운 일이 항상 웃는 일일진대 꽃은 언제 나 웃고 있다.

꽃은 자리도 탓하지 않는다. 궁색한 탁자나 옥상 구 석에도 엉덩이를 붙인다. 산속이나 들판, 논둑이나 장 독대에서도 가리지 않고 팔베개한다. 녹슨 철모를 뚫 고 올라오고, 자동차 바퀴 틈새에 핀다. 아스팔트 갈라 진 틈새도 자리를 잡는다. 물 위에서 수련은 더욱 우아 하고, 백년초는 사막에서 피어 더욱 아름답다. 발길에 밟히면서도 질경이는 포기하지 않고, 지린내 속에서 노루오줌은 꽃말처럼 쑥스럽게 핀다. 평생 좋은 자리 만 탐했던 나는 이 여린 식물 앞에서 더없이 작아진다.

꽃이 방긋 웃으니 나도 덩달아 웃는다. 꽃이 내가 되 고, 내가 꽃이 되는 호접지몽(胡蝶之夢)인들 어떠랴. 그이의 동백꽃을 내 볼에다 옮겨 붉게 피우고도 싶고, 살구꽃이 되어 그이 마당 앞을 훤하게 밝히고 싶다. 장 독대 밑에 봉숭아처럼 피어 누이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도 싶고, 집 뒤뜰 담장에 호박꽃으로 피었다가 그이 저 녁 밥상에 뜨끈한 된장국 호박 건더기가 되고도 싶다. 무덤가 망초로 피어 무덕무덕 닿고 싶고, 집현전 뜰에 '곶'으로 내려앉아 자음 모음을 팡팡 퍼뜨리고도 싶

꽃에도 눈 코 입이 있다면, 진달래나 벚꽃처럼 보고 탄성이 절로 나면 봄꽃이다. 봄꽃은 대개 입으로 반긴 다. 여름꽃은 색이 진해서 눈으로 만진다. 장미나 해바 라기처럼 원색의 아름다움 속으로 훅 빨려 들어간다면 여름 꽃이 맞다. 가을꽃은 향기가 진해서 국화나 구절 초처럼 눈을 감고 코를 가져다 대지 않으면 가을꽃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다. 겨울 꽃은 마음속에서 피는 꽃 이라서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야 얼굴을 보이는 귀하 디 귀한 꽃이다.

나이를 먹으면 사람도 꽃이 된다. 잔대나 도라지 뿌 리가 굵어지고 고구마도 토실해지듯 사람들도 가을이 되면 그간 살아온 삶의 향기도 짙어진다. 오래될수록 향기로운 것도 사람이다. 청렴한 이는 시궁창에서도 되레 맑고 향기로우며,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삶이 척박할지라도 맑게 살고 맑은 향기로 말한다.

꽃은 누구나 좋아한다. 꽃도 좋고 향기도 좋고 사람 도 좋은 것이 꽃 선물이다. 꽃 품앗이를 해도 좋겠다. 주거니 받거니 꽃이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가 꽃을 보 내 꽃으로 왔으니 이번엔 내가 꽃이 되어 가야겠다. 뒷 산 할아버지도 뵙고, 고향집 어머니에게도 가고, 멀리 간 친구도 만나고 싶다.

꽃으로 가려면 내가 먼저 씨앗이 되어야겠다. 화분 속에 들어앉아 고운 향기를 만들 일이다. 맑은 마음 없 이 어찌 꽃이 되고 향기가 나라! 난 꽃이 되는 중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미소와 향기뿐, 그의 가슴에 씨앗 이 되어 움틀 날만 기다린다. 그의 체온으로 피어나고 그의 온도가 날 키우리라. 그의 가슴에 안겨 그의 꽃으 로피고 싶다. 어둠을 뚫고 바위를 뚫고, 맑고 향기롭게 피어나리라.

#### 기 卫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관

젊어서 죽은 시인이 있다. 기형도.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명문 대학을 나와 중앙 언론사를 다니면서도 시인을 꿈꾸었고, 종로의 B급 심 야극장에서 새벽에 청소부에 의해 죽은 채 발견되었던 시인. 손에는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다고 한다. 1989 년. 사인은 뇌졸중. 향년 29세. 나름 성공한 삶이었음 에도 그 시대의 우울과 비관을 담았던 시인. 생각해 보 니 20대에 시인이 되기를 꿈꿀 수 있었던 시대도 있었

그러나 무엇보다 1980년대는 군부독재에 저항한 죽 음의 시대였다. 윤상원·박관현 열사는 불과 서른 살 남 짓의 나이에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후 광 주의 비극과 항쟁 내용이 전국에 알려지고 1990년대 초까지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 한 몸을 바쳐 민 주주의를 요구하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열사들의 희생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누리는 나라가 되 었다.

시간이 꿈결같이 흘렀고, 이제 한국은 전 세계 젊은 이들이 선망하는 곳 중 하나가 되었다. 2021년 한국은 미국 언론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 8 위를 기록하였고, 선진국 그룹인 G7에 초청되어 주요

# 선진국 시대, 청년을 살려야 국가가 산다

선진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한국 보이 그 룹이 빌보드 차트 1위가 되어도 놀랍지 않고, 선진국 출신의 외국 청년들이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한 국에 살아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최근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을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 으로 변경하였다. 우리는 진짜 선진국인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시대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20·30대들은 20세기 젊은이들이 꿈꾸었던 민주주의나 정의, 시와 예술 대신 취직·거주·결혼 같은 현실적 가치 를 더 중시한다. 이것은 요즘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기적이기 때문인가? 그들이 한국을 찾은 외국 청년처 럼 개척 정신이 없기 때문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그들은 기성세대 들이 구축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 로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하는 것이다. 사회에 진입하 려는 청년들의 노력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 라는 정당한 요청이고 간절한 호소이다. 이 새로운 사 회적 현상은 한국이 노력만 하면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고도 성장기를 거쳐, 이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 결할 수 없는 자본에 기초한 세습적 신분사회가 되었다 는 것을 뜻한다.

그중 최근 나타난 '이대남' (20대 남자), '이대녀' (20대 여자)라는 신조어도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한 다고 할 수 있다. 아마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이 현재 청년 계층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지금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현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 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처방이기 때문이 아닐 까? 일시적 기간제 근로자, 일시적 인턴, 일시적 지원 금을 받고 인생을 설계할 수는 없다. 청년층이 원하는 것은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 내지 '공정성'이다. 개인 의 노력만으로 이 사회에서 집을 살 수 없고, 직장을 얻 을 수 없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한들 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KBS에서 방영된 '2021 청년 고독사 보고서'라 는 프로그램은 놀랍고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결과를 보 여준다. 체납고지서와 이력서, 빈 술병과 라면, 쓰레기 등이 남겨진 청년 고독사의 현장은 그들의 죽음이 개인 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청년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한국 역사상 최초 로 지난 4월 시행되었다. 죽어서야 보이는 청년들을 위 한 최초의 법률이다.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부터는 경제 적 자립 기반이 없는 청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 정책과 장기적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1980·1990년대와 지금의 취업률이 다르니, 지금 은 경제적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청년들이 기본적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 제공, 취업 지원, 재교육 지원, 기초생활비 지원 등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제공, 육아 및 평생 교육비 지원, 출산 시 인센티브 강화 등이 놀랄 정도로 파격적 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출산률 저하가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 청년층의 고독사로 국가 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이 시대에, 이것 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국가 과제이다. 지금은 그대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물을 때가 아니 라, 국가가 젊은 그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할 때이다.

### 社說

### 수도권발 코로나 '풍선효과' 적극 차단을

상치 않다. 수도권에서 밀려오는 델타 변 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광주의 확진자는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전남 역 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역 간 이동이 빈번한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오후 2시 현재 여덟 명이 추가돼 총 3046 명으로 늘었다. 특히 광주는 지난 9일 21 명에 이어 10일 23명, 11일 14명 등 최근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 히 지난 10일은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감 소하는 주말이었는데도, 지난해 2월 코로 나19 첫 발생 이후 단일 시설 내 집단 감 염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하루 신규 확진 자가 쏟아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발생한 확 진자 중 30% 이상이 수도권에서 유입되 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발 코로나19는 학원과 학교, 요양원 등 지역사회 곳곳에

광주·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 산발적으로 번지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 으로 안정세였던 전남에서도 11일 하루 에만 19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들 역 시 다른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최근 1주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에 대한 진단 검사 권고, 실내외에서 전원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오는 25일까 지 시행하기로 했다.

> 하지만 휴가철이 겹친 데다 수도권에서 어제부터 대폭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가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확산세와 규제가 약한 광주·전남으로 피서객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 서 이 같은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면 타 지역 확진자의 방문이나 그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도권 등지를 방문한 지역민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들은 코로나가 다시 지역사회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백 신 접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갈수록 줄어드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시장이 위축되면 서 젊은이들이 취업에 애를 먹고 있다. 설 상가상으로 올해 예정된 나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이전 지역별 지역 인재 채용 실적·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기관 13곳은 의무 채용 대상 인원 1012명의 27.6%인 279 명을 광주·전남 출신으로 채울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기관이 채용 한 지역 인재 346명에 비하면 67명(-19.4%)이나 줄어든 규모다.

그렇다고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니었다. 지역 인재 채용 달성률 27.0%(1280명 중 346명)로 기준 목표 비율(24.0%)을 가까스로 넘겼지만, 전 국 이전 지역 12곳 가운데 10번째에 불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지역발전계획

을 세운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 가운데 6곳이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을 줄인 것이 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은 지난해 (219명)보다 69명 줄어든 150명을 지역 에서 채용한다.

물론 지역 인재 채용 목표를 전년 실적 보다 높게 잡은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전KDN은 전년보다 8명 많은 27명을 뽑기로 했다.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농 수산식품유통공사 등도 지역 인재 채용 목표를 작년보다 늘려 잡았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 인재가 이 전 공공기관에 근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밀착돼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살리는 동 시에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지역 인재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 여 주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대추 여울'

광주천 직강(直江) 공사가 추진된 때 는 1928년 이후이다. 일제는 구불구불한 하천을 직선화하고 좌우에 제방을 쌓았 다. 그 이전까지는 불로동 옛 적십자병원 앞 하천변에 형성된 넓은 모래톱에 '작은 장터'가 서곤했다. 이곳 '작은 장터'는 호 남창의회맹소를 결성해 항일 의병투쟁을 펼친 성재(省齋) 기삼연 의병장이 1908 년 2월 일경에 붙잡혀 순국한 역사의 현 장이기도 하다.

광주천이라는 명칭 역시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명명된 것이

다. 이전에는 건천(巾 川), 금천(錦川), 조탄 (棗灘) 또는 조탄강 등

으로 불렸다. 조탄을 우리말로 풀면 '대추 여울'이니 그 이름만 들어도 서정적인 풍 광이 머릿속에 펼쳐진다. 옛 적십자병원 앞에는 하천을 막은 조탄보가 있어 하천 물이 광주읍성을 보호하는 해자(垓字)를 거쳐 경양방죽으로 흘러들었다고 한다.

고(故) 박선홍 선생의 '광주 1백년'에 따르면 광주천은 시민들의 쉼터였다. "큰 장과 작은 장이 강변을 중심으로 형성되 었으며 상류 일대가 모두 벌판인데 우마 (牛馬)의 방목지요 시민들의 놀이터였

다. 보의 주변에 고목이 늘어서 있어 여름 철엔 광주 시민들의 유일한 납량지(納凉 地)가 되었다."

그렇지만 1920년대 촬영된 자료 사진에 는 조탄보 주변 숲에 일본식 요정이 자리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실제로 일본인 주객들이 배를 띄워 놓고 밤새 술을 마셔 가며 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고 한다. 100여 년 전 광주읍성과 광주천의 모습은 이제 찾기 어렵다. 그나마 광주의 지난 흔 적을 꼼꼼하게 기록한 향토사학자와 연구

자들 덕분에 과거의 역사

를 그려 볼 수 있을 뿐. 광주 역사민속박물관 에서 열리는 기획전 '광

주천-대추여울의 시간' (~8월 29일)은 광 주 근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2 층 전시실에는 광주읍성을 세밀하게 축소 해 재현해 놓았다. 광주읍성 4대문을 비 롯해 조탄보와 노지다리, 작은 장터, 광주 읍성, 경양방죽 등의 위치를 쉽사리 찾아 볼 수 있다. 우리의 무심함 속에서 '대추 여울'과 같은 광주의 옛 역사가 잊혀 가 고 있다. 100년 전 광주와 광주천의 모습 을 살피면서 한여름 더위를 식혀 보는 것 은 어떨까.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 光则日報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The Kwangju Ilbo

⟨FAX 222-0195⟩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치 부 220-0632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부 220-0621

체 육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FAX 222-019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